

2024년 중국경제의 주요 쟁점과 전망 -5가지 쟁점과 우려



2024년 중국경제의 주요 쟁점과 전망 -5가지 쟁점과 우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한재진 연구위원 (hzz72@hri.co.kr)

목 차

1. 최근 중국경제 현황
2. 2024년 중국경제의 주요 쟁점
3. 전망 및 시사점

- 2023년 중국경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 부동산발 쇼크 재발, 지방 정부발 부채 확대 등 대내외 리스크 발생에도 불구하고 5.0% 성장목표치 달성
- 2023년 중반 비구이위안(善桂園)발 부동산 리스크가 발생했으나, 하반기부터 내·외수 경기와 소폭 개선되며 연간 GDP 5.2% 성장률을 기록함.
- 2023년에는 부동산, 주식 및 금융부문 등 금융안정분 아니라, 지준율, 대출우대금리 등 내수 확대를 위한 경기 부양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임.
- 2024년 중국경제 주요 쟁점은 △양날의 칼, 부채와 디플레이션, △꺼져가는 민간부문의 동력, △부동산은 반등할 것인가?, △떠나는 외국인 자본은 일시적 현상인가? 등 4가지로 제시할 수 있음.
- 2024년 중국경제는 4.5~5% 성장목표치 설정이 예상되나, 부동산 부실 재확산, 디플레이션 장기화 지속, 외국인 자본 이탈 심화, 미·중 간 경제 갈등 확대 등 대내외 리스크에 따라 4% 초반대 성장에 그칠 가능성도 상존
- 아울러 최근 일본의 1990년대처럼 대차대조표 불황에 빠지고 있다는 우려에서 탈출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2024년 대대적인 경기 부양은 물론 새로운 개방화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함.

1. 최근 중국경제 동향

1) 2023년 중국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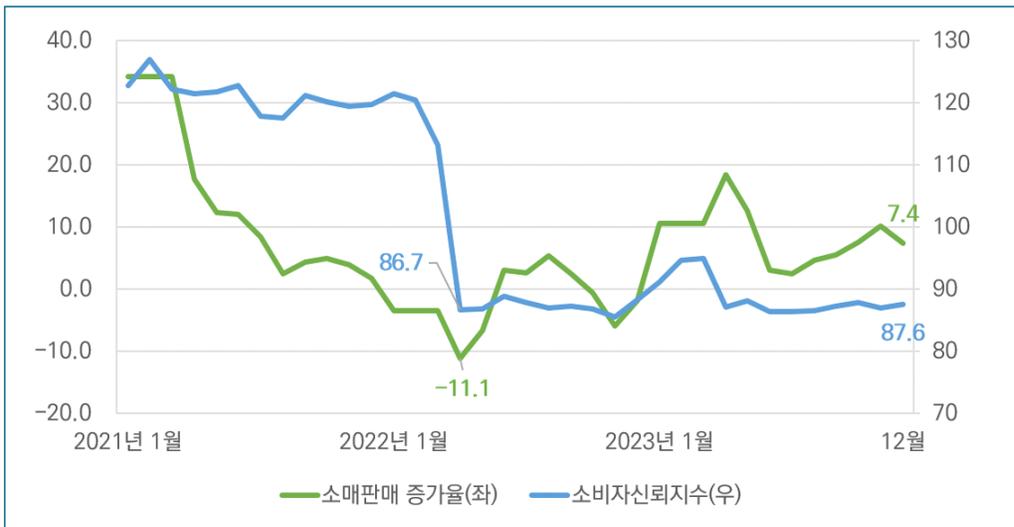
■ 성장목표는 달성했으나, 핵심 성장동력인 소비 심리는 여전히 바닥

- 중국경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큰 “W” 자형 성장 패턴을 나타냈으나, 점차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 2019년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경제는 하나의 큰 “W” 자형 성장 패턴을 보임.
- 2020년 분기별 GDP 증가율은 코로나로 인해 1분기가 -6.9%로 급락했으나 이후 경기 부양 정책 효과로 2분기~4분기는 우상향

- 반면 2021년은 1분기 18.7% 성장 이후 2~4분기 우하향하다 2022~2023년은 반복적으로 오르내림을 반복하며 이른바 “W” 자형 성장 사이클 형태를 나타냄.
- 다만, 최근 미국 금리 인상 지속, 부동산발 리스크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성장 패턴의 불규칙성이 확대되는 상황이 출현하기 시작
- 2023년 중국경제는 5.0%의 성장목표치를 넘어섰으나, 소비 심리는 바닥권
 - 2022년은 성장목표를 5.5%로 자신했지만, 2월에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월 상하이 봉쇄 단행 등 대내외 리스크 여파로 연간 3.0% 성장에 그치며 성장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 발생함.
 - 2023년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비구이위안(碧桂園) 등 부동산발 리스크 재발로 불확실성이 커졌으나 4분기부터 내·외수 경기가 소폭 회복하며 연간 5.2%를 달성
 - 그러나, 경기 선행지수인 소비자신뢰지수는 2022년 4월 이후 21개월 연속 80p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소비 심리 냉각 지속
- 소비자신뢰지수는 지난 2022년 3월 상하이 봉쇄 직후인 4월 86.7p(1990년 이후 최초로 80p대로 하락)로 급락한 후 2023년 12월(87.6p)까지 1년 9개월 동안 80p대가 지속

[그림 1] 중국 소매판매와 소비자신뢰지수 추이(2021~2023년)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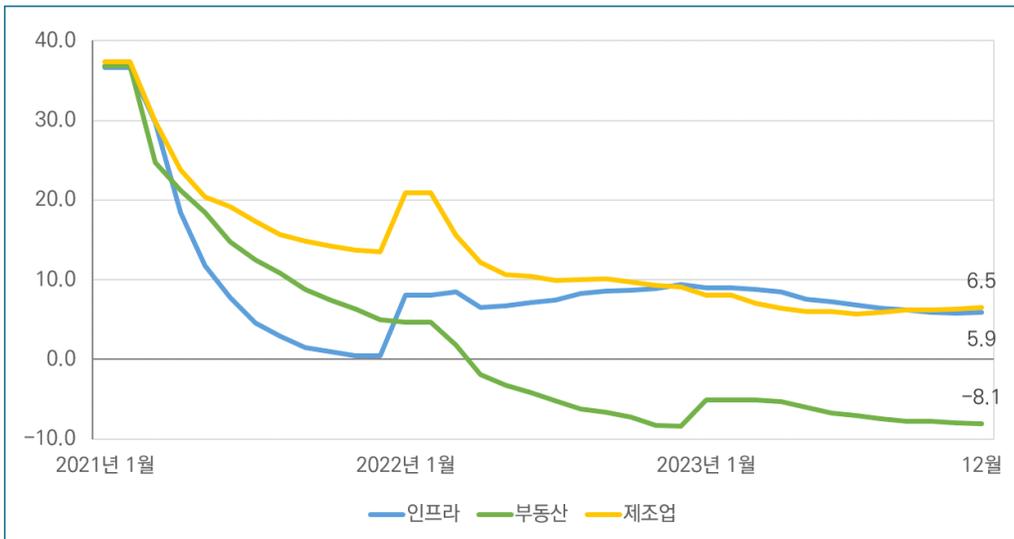
자료: CEIC

■ 부동산 리스크발 민간투자 냉각 속 외수경기 하방압력 지속

- 중국의 투자는 제조업 및 인프라 투자 부문은 전체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을 상회하는 한편, 부동산투자 부문은 침체 국면이 이어지는 실정
 - 전체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2023년 12월 누적기준 3.0%로 동년 1월부터 지속 우하향하는 가운데 민간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 양상이 지속
 - 민간투자 증가율은 동기준 -0.4%로 2023년 5월부터 8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이 지속되는 등 부동산발 리스크 확대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 판단
 - 부문별로는 제조업과 인프라 부문은 증가율 소폭 둔화속 한 자릿수 증가율 유지하는 반면 부동산 부문은 20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이 지속
 - 2023년 12월 누적기준 제조업과 인프라 투자 증가율은 각각 6.5%, 5.9%로 전체 고정자산투자증가율은 상회하는 상황
 - 다만 부동산투자 증가율은 2023년 11월 누적기준 -8.0%로 2022년 4월 -1.9% 이후 1년 8개월간 마이너스 증가율이 지속, 2022년 3월 상하이 봉쇄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2] 중국의 주요 산업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추이(2021~2023년)

(단위: %)



자료: CEIC

- 한편, 외수 경기는 여전히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EU, 아세안, 미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 수출도 마이너스 증가율이 지속됨.
 - 수출증가율은 2023년 연간 -4.6%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나타냈으나, 동년 11월부터 소폭 개선세를 보이는 양상
 - 중국의 대세계 수출증가율은 2022년 10월 -0.3%를 기록한 후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2023년 11월부터 2개월 반짝 개선세를 나타냄.
 - 2023년 연간 EU, 아세안, 미국 등 중국 전체수출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지역 및 국가에 대한 수출증가율도 1년 넘게 마이너스가 지속
 - 2023년 12월 기준 중국의 주요국 수출증가율은 EU -1.9%, 아세안 -6.1%, 미국 -6.9% 등 2023년 5월부터 경기 냉각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
 - 다만 동기준 미국은 2023년 11월 7.3%로 기저효과로 반짝 개선되었으나, 동년 12월 재차 역성장하며 향후 세계 경제 회복 및 미-중 통상갈등 등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빠른 회복은 어려운 상황

2) 경기 부양 정책

■ 내수 확대와 금융 안정화에 초점을 둔 경기 부양 정책 시행

- 2023년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성향은 8월 발생한 비구이위안 등 부동산발 금융 쇼크에 따른 유동성 및 신용 리스크에 대비한 정책에 집중
 - 2023년 8월 발생한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의 채무불이행 사태 확산에 대비해 부동산기업의 현금흐름 안정화 및 신용 위험 완화에 대응할 정책 제시
- 내·외수 경기 둔화 여파로 인해 지급준비율 및 대출우대금리 인하 등 확대적 금융통화정책도 시행
 - 대출우대금리, 지급준비율 등 두 차례의 금리 인하 정책을 통해 실물경제의 유동성 확보 지원 추진

[표 1] 2023년 중국의 주요 경기 부양 정책

구분	정책 내용
부동산	① 보유주택 매도 뒤 1년 이내에 주택 매입시, 기존주택 매도에 따른 개인소득세 환급 (2024.1. 시행) ② 지역별 주택 계약금 차등 조치 폐지 ③ 첫주택 구매자에게 계약금 20%, 기존주택 보유자에게는 계약금 30% 적용 ④ 과거 주택대출을 받았더라도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무주택자로 구분 ⑤ 다주택자에 대한 모기지금리를 대출우대금리(LPR)+60bp → LPR+20bp로 인하 ⑥ 첫주택자의 경우 은행과 가산금리를 재협상해 인하하도록 권고 ⑦ 다양한 소유제 부동산기업의 합리적 파이낸싱 수요에 대한 평등 대우 ⑧ 공공임대주택 건설, 도심 낙후지역 재개발, 일반 및 긴급 이중 용도 인프라 건설 등 3대 사업 가속추진(중앙금융공작회의)
주식	① 주식거래 인지세를 0.1% → 0.05%로 인하(2023.8.27.) ② 주식 신용거래 증거금 비율을 100% → 80%로 하향(2023.9.8. 시행) ③ 신규 IPO 등록 물량 제한 ④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할 경우 대주주가 지분 축소를 못 하도록 제한
기타 금융지원	① 1년물 대출우대금리 3.65% → 3.55%(2023.6.20.), 3.55% → 3.45%(2023.8.20.) 등 두 차례 인하 ② 지급준비율 11.0% → 10.5%(대형금융기관), 8.0% → 7.5%(중형금융기관) 인하 ③ 외화지급준비율 6.0% → 4.0%(2023.9.15) 인하 ④ 선진 제조기업 증치세(부가가치세) 감면 확대

자료: 국제금융센터, 중앙금융공작회의, 중국인민은행 등 자료 종합

2. 2024년 중국경제의 주요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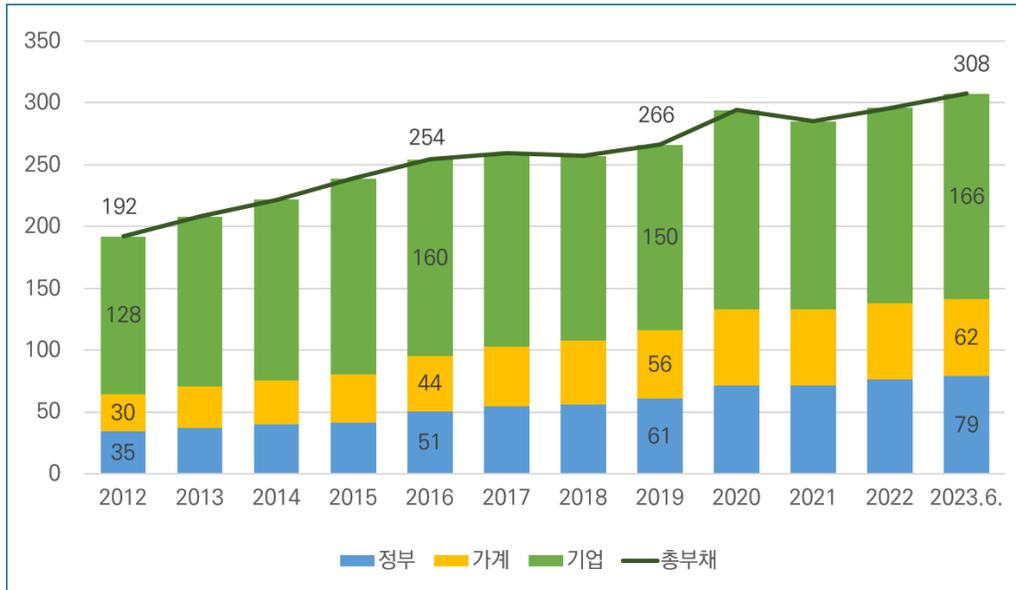
1) 양날의 칼, 부채와 디플레이션

▣ 늘어나는 부채와 디플레이션 징후 사이에서 정책 혼선 불가피

- 2023년 3월 기준 GDP 대비 총부채 비중이 역대 최초로 300%를 초과함.
 - 국제결제은행(BIS)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6월 현재 중국의 총부채는 약 52조 달러로 GDP 대비 약 308%에 이름.
 - 부문별로는 동기준 가계 62%, 기업 166%, 정부 79% 등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에 비해 정부와 기업 부채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진 상태
 - 2023년 6월 기준, 중국의 총부채 수준은 전세계 5번째 수준
 - 동년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중은 일본 414%, 룩셈부르크 403%, 프랑스 323%, 캐나다 308% 등에 이어 5번째로 높으며, 이는 2022년 6월 9번째였던 순위보다 4계단 상승한 수치

[그림 3] 중국의 부문별 GDP 대비 부채 비중 추이(2012~2023년 6월)

(단위: %)



자료: BIS

- 한편, 소비자물가(CPI)와 생산자물가(PPI)가 동반 감소하는 등 디플레이션 우려 확대
 - 역대적으로 중국의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가 동시에 감소한 시기는 대부분 글로벌 경제 위기 시기이며, 글로벌 수요 감소가 원인이 됨.
 -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가 동시에 장시간 감소한 시기는 1998년, 2002년, 2009년 등 3번 있었음.
 - 단, 단기적으로 동시에 감소한 시기는 2020년, 2023년이나, 2020년과 달리 2023년은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인 생산자물가가 1년(2022년 10월~현재)에 걸쳐 마이너스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2024년 1분기 동안 소비자물가 지속 하락이 우려됨,
 - 이는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등 글로벌 수요 감소에 따른 하방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내·외수 경기의 더딘 회복 요인이 큰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자칫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대
- 이에 따라, 2024년 연초부터 기준율, 대출우대금리 등 추가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 확대로 디플레이션 방어가 예상되나, 늘어나는 부채에 대한 정책 실효성이 약화할 수 있는 딜레마에 직면할 우려도 상존

2) 꺼져가는 민간부문의 동력

■ 민간투자의 비중에 비해 낮은 성장률 지속

- 2021년 중국 정부의 공동부유(共同富裕)론 표방 이후 민간부문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민간부문 성장동력이 크게 약화
 - 민간부문의 위축은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 영향도 크지만, 2021년부터 추진된 공동부유론 표방에 따른 부작용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2021년 8월 공산당 중앙재정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최초로 거론된 공동부유론은 빈부격차를 줄이고 모두 부유해지는 상태를 의미
 - 다만, 플랫폼 기업, 사교육, 핀테크 등 빅테크 및 민간부문 산업 전반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통제가 강화되면서 알리바바 등이 포함된 전자상거래 산업은 물론 민간부문

전체가 위축되는 양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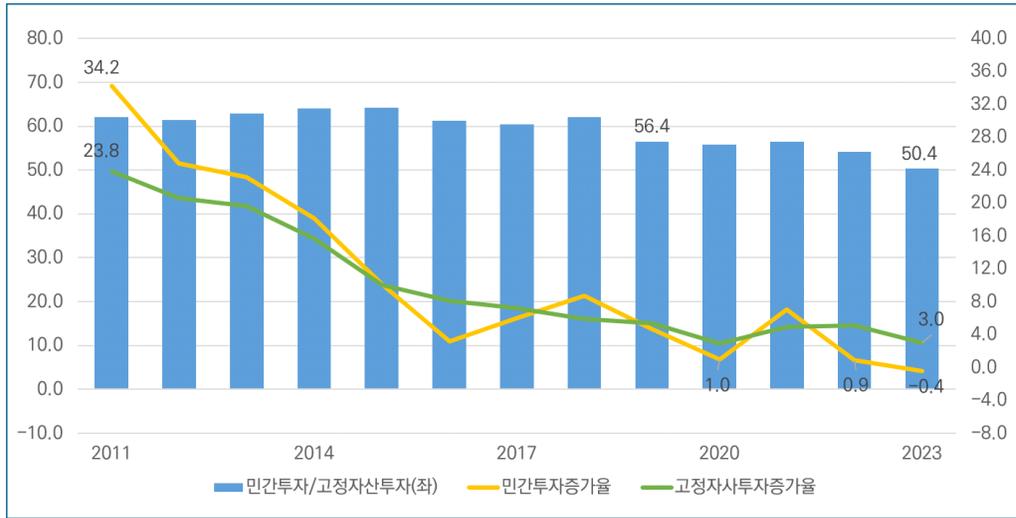
- 이에 따라, 2022년부터 민간투자 및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간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는 등 민간부문의 침체가 확산하는 상황
- 민간투자 및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지난 2016년부터 두 자리에서 한 자릿수로 내려오기 시작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2020년 급락 초래
- 그러나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되기 시작한 2022년부터 정부 주도의 투자가 늘어나는 반면 민간투자는 위축 심화가 출현함.

■ 정책 지원 효과 여전히 미지수

- 중국 정부의 민간투자 부문에 대한 부양책은 2022년에 이어 지속해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효력 발생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태
 - 2022년 11월, 「정책 환경 개선 및 민간투자 발전 지원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完善政策环境加大力度支持民间投资发展的意见)」을 통해 6대 조치를 발표한 바 있음.
 - 민간 자본 102개 주요 사업 참여 허용, 과학기술 분야 및 주요 공급망 참여 장려, 민간 자본의 부동산 투자 신탁(REITs) 시범 사업 참여 등 제시
 - 2023년 7월, 9월에는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부양정책 제시
 - 7월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에서 「민간투자 촉진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抓好抓实促进民间投资工作努力调动民间投资积极性的通知)」를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 조치를 제시
 - 9월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에 '민영경제발전국(民营经济发展局)'을 신설해 민간투자 촉진에 관한 정책 발굴 등 총괄 업무 담당 부여
 - 또, 민간 기업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재정적자 목표는 약 4.0%에 근접할 가능성도 상존하는 상황이며, 기업부담 경감 및 활력 증진을 위한 감세 정책도 유지 전망
 -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안정 속 성장(穩中求進)'에 '성장을 통해 안정 촉진(以進促穩),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구조조정 지속 추진(先立後破)'을 추가하는 등 경제 연착륙을 위한 기초 확립
 - 아울러, 기업 R&D 세액 공제, 친환경차 구매세 감면, 개인소득세 조정 등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지속

[그림 4] 중국 민간투자 비중 및 증가율 추이(2011~2023년)

(단위: %)



자료: CEIC

3) 부동산 해빙기 언제 오나?

■ 주택 수급 냉각 국면이 지속

- 2021년恒大(恒大)에 이어 2023년 비구이위안(碧桂园), 완다(万达) 등 부동산 개발업체의 디폴트 사태가 이어지면서 중국 부동산 시장 냉각 국면이 지속되고 있음.
- 부동산 수요를 나타내는 주택판매액은 2021년 중반부터 2022년 말까지 급격하게 냉각하다 2023년 상반기 회복세가 나타났으나 비구이위안, 완다 등 부동산 쇼크 재발로 다시 침체 국면으로 이어짐.
- 주택판매액 증가율은 2021년 7월 -7.2%로 감소한 후 2022년 말까지 1년 6개월 동안 마이너스 양상이 지속되었으나, 2023년 상반기 회복세로 돌아섬.
- 그러나, 2023년 중반부터 비구이위안, 완다 등 부동산 개발업체 쇼크가 재점화되면서 동년 7월부터 11월까지 마이너스 양상이 재현되고 있는 상황
- 다만, 공급측 지표인 주택개발투자 증가율은 2021년 9월부터 감소한 후 2023년 11월까지 감소세가 지속하는 등 부동산 부실 쇼크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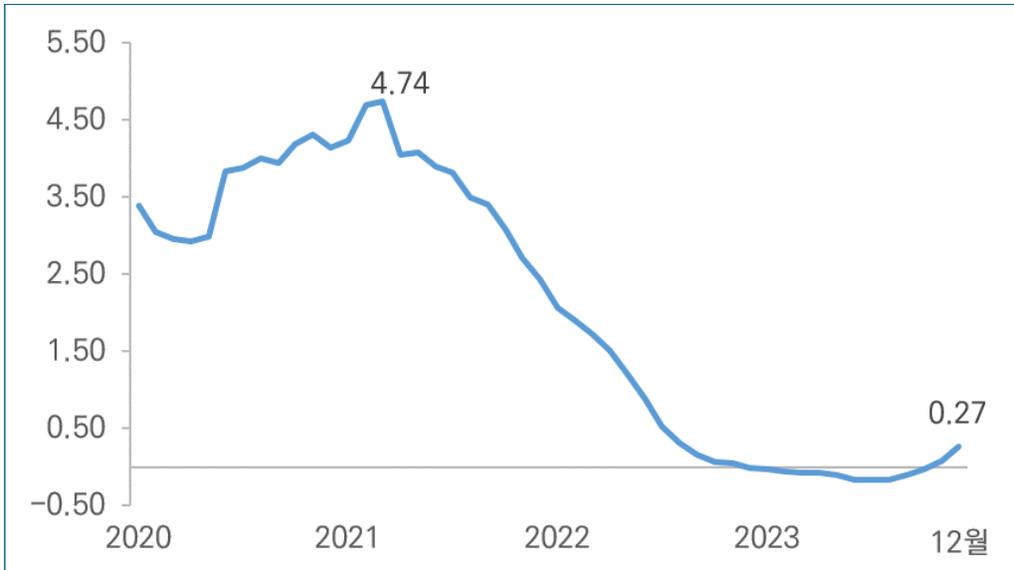
- 주택개발투자 증가율은 2021년 9월 -1.6%로 감소한 후 2023년 11월 -19.3%로 이어지며 2년 넘게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2024년 상반기 내 회복세 전환 실패할 경우 불황 장기화 우려

- 최근 주택가격이 소폭 개선되며 미약하지만 회복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존하는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정책 효력이 미약한 수준
 - 중국지수연구원의 전국 100대 도시의 평균 주택가격 증가율은 2023년 11월부터 2개월 연속 플러스 증가율을 나타냄.
- 전국 100대 도시의 평균 주택가격 증가율은 2021년 3월 4.74%로 정점을 찍은 후 증가세가 감소하며 우하향 추세가 지속
- 2022년 12월부터는 동기준 주택가격 증가율 감소세로 돌아서며 2023년 10월까지 마이너스 양상이 이어졌으나, 동년 11월부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바닥권 탈출 가능성도 남아 있음.

[그림 5] 중국 100대 도시의 신규주택가격 증가율 현황(2020~2023년)

(단위: %)



자료: 중국지수연구원

4) 떠나는 외국인자본은 일시적 현상인가?

■ 외국인직접투자(FDI) 4개월 연속 감소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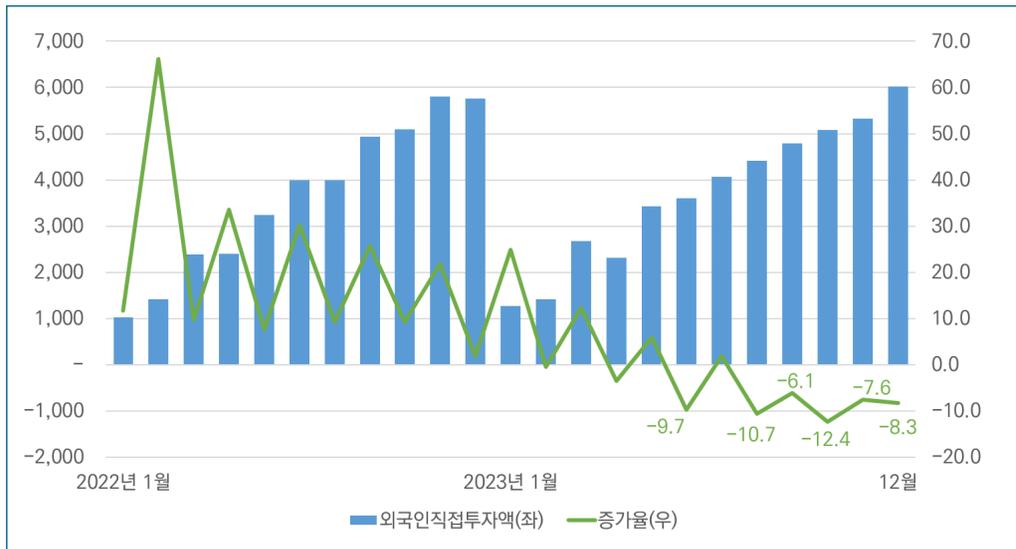
- 2023년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3~4분기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로 전환
 - 2023년 12월까지 중국으로 유입된 직접투자액은 약 1.13조 위안으로 전년대비 약 988억 위안이 감소함.
 - 2023년 12월 위안화 기준 중국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율은 -8.3%를 기록하며 동년 8월 -10.7% 이후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양상이 나타남.

■ 중국경제가 처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외국인자본 이탈은 더 커질 전망

- 지방부채 등 부채 확대, 부동산 부실 확산 지속, 미-중 간 경제적 대립 등 대내·외 경제 및 외교적 리스크 확대로 투자유인 매력도가 점차 하락
 -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위축 요인은 향후 중국경제에 처해 있는 리스크 확대 우려 요인이 지배적
 - 2023년 12월 5일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Mood's)는 중국 정부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하향 조정함.
 - 이는 중국 정부가 최근 지방정부와 국영기업이 처한 부실화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향후 재정, 경제, 제도적 측면에서 위험에 직면할 거라는 근거하에 내려진 결정
- 2023년 3분기 직접투자 부문 부채가 역대 최초로 마이너스 기록하는 등 외국기업들의 중국내 자본 이탈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
 - 국제수지표(Balance Of Payments)상 직접투자 부채(Liability) 항목이 2023년 3분기 기준 약 -118억 달러로 지난 1998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상황이 발생함.
 - 직접투자 부채란 의미는 외국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투입 자본보다 빼낸 자본이 더 많다는 의미로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신규 및 재투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위험 신호인 셈임.

[그림 6] 중국 외국인직접투자 현황(2022~2023년)

(단위: 억 위안, %)



자료: CEIC

3. 전망 및 시사점

■ 2024년 성장목표치 4.5~5.0% 예상

- 2024년 중국경제는 부동산 회복과 지방정부 부채위기 극복 여부에 따라 성장률 조정이 예상된다.
- 올해 양회(兩會)에서 나올 2024년 성장목표치는 5.0% 설정이 예상되나, 부동산 침체 및 지방정부 부채 등 리스크 재확산 가능성에 크므로 4.5%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중국의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장밍(张明) 부소장은 2024년 중국경제가 5.0% 성장하고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까지 방어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함.
- 반면, 중국 수석이코노미스트포럼(China Chief Economist Forum) 이사회 멤버인 왕타오(汪涛) 박사는 부동산 침체와 지방부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2024년은 2023년보다 낮은 4.0%대 정도로 예상하는 등 비교적 객관적 시각 제시
- 한편, IMF, ADB 등 주요 국제기관들은 2024년 중국경제가 4%대 중반을 예상하는 등 아직은 부동산 침체 국면 탈출이 쉽지 않다는 시각이 다수
- 2024년 중국경제는 평균적으로 4.5~4.7% 내로 전망했으며, 2025년은 4.1~4.3%로 2024년보다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함.

[표 2] 2024년 중국경제 전망

(단위: %)

구분	2024(E)	2025(E)
IMF(2023.10.)	4.6('23.11)	4.1
OECD(2023.11.)	4.7	4.2
World Bank(2023.12.)	4.5	4.3
ADB(2023.12.)	4.5	-
중국사회과학원(2023.12.)	5.0	-
IB 평균(2023.12.)	4.6	4.3

자료: 각 기관 발표자료, 국제금융센터 자료를 종합하여 저자 재정리

■ 역대급 경기 부양을 통한 회복 시도가 예상

- 최근 중국의 부동산 침체 및 디플레이션 우려 등 중국경제가 처한 구조적 리스크 탈출을 위해서는 올해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뿐 아니라 개방도 대폭 확대 시도가 예상되나 효과측면에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2021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침체 국면과 2023년 출현하고 있는 디플레이션 그림자에 대한 탈출 시기는 2024년이 마지노선인 것으로 판단됨.
 - 또, 일부 학자는 중국의 현 상황이 일본의 과거 1990년보다 심각하다고 경고함.
 - 노무라 리서치(Nomura Research Institute) 수석 이코노미스트 리처드 쿠(Richard C. Koo)는 중국의 부동산 가격 추이(2011~2023년)와 과거 일본의 부동산 가격 추이(1980~1991년)와 유사하며 향후 2035년까지 10년간 중국의 위기 시작을 경고
 - 또한, 그는 2023년 중국이 처한 상황은 1990년 당시 일본보다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함.
 - 아울러, 최근 외국인직접투자액 감소뿐 아니라, 대차대조표 불황 등에 따른 세계 시장 지위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가까운 시일내 어떻게 외국자본을 유인할 정책을 마련할지 전략적 난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 2023년 10월, 시진핑 주석은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막 연설에서 “제조업 분야 외국인 투자 제한 전면 폐지”를 선언함.
 - 그러나,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의 미·중 간 공급망 갈등 심화 선상에서 볼 때, 뒤늦은 개방화 전략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참고자료

- 백진규(2023). 「최근 중국의 경기부양책 강화 및 평가」. 국제금융센터.
- 정예지(2024). 「주요 투자은행의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을 전망」. 국제금융센터.
- 「关于进一步抓好抓实促进民间投资工作努力调动民间投资积极性的通知」 国家发展改革委. 2023. 7. 24.
https://www.ndrc.gov.cn/xwdt/tzgg/202307/t20230724_1358622.html(검색일: 2024년 1월 5일)
- “国家发改委：采取务实举措促进民营经济发展” 中国新闻网. 2024. 1. 3.
https://news.youth.cn/gn/202401/t20240103_15000692.htm(검색일: 2024년 1월 5일)
- “2024年中国经济增长前景值得期待” 新浪财经. 2023. 12. 27.
<https://finance.sina.com.cn/jjxw/2023-12-27/doc-imzmmmez1084504.shtml>(검색일: 2024년 1월 4일)
- “2024-25年中国经济展望：经济增长在房地产下行中企稳” 腾讯网. 2023.11.10.
<https://new.qq.com/rain/a/20231110A09S7300>(검색일: 2024년 1월 7일)
- Tianlei Huang·Mary E. Lovely. 2023. “Five big uncertainties facing the Chinese economy in 2024.” PIIIE. 2023. 12. 21.
<https://www.piiie.com/blogs/realtime-economics/five-big-uncertainties-facing-chinese-economy-2024>(검색일: 2024년 1월 7일)
- Richard C. Koo, 2023. “TokyoChinese Economic Challenges Today VersusJapanese Economic Challenges 30 Years Ago” Nomura Research Institute.
- 중국국가통계국(<http://www.stats.gov.cn/>)
CEIC